

‘성적’보다 잘 어울리는 ‘리더’로 키웠다

백악관기자 보니 앤젤로에 듣는 ‘美대통령 어머니의 교육법’

미국의 유명 시사주간지 타임의 백악관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역대 미국 대통령 11명의 어머니들에 얽힌 이야기를 한 권의 책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First Mothers·나무와 숲)’로 엮은 보니 앤젤로가 31일 방한해 기자와 마주앉았다. ‘혼란의 도시’ 뉴욕을 떠나 장시간 계속된 여행에 지쳤을 텐데도 키 160cm 남짓의 이 60대 베테랑 여기자는 “기다려주어 고맙다”며 자신이 받은 꽃다발에서 분홍 장미꽃 한 송이를 뽑아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빌 클린턴까지, 그녀가 밀착 취재한 미 대통령 어머니들 11인의 ‘특별한 자녀교육법 A부터 E까지’에 대해 들었다.

교육의 중요성 절감 공통점

Attitude(태도)

Q:대통령의 어머니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생관이나 태도가 있다면...

A:이들은 모두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본인들 스스로도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다. 8명은 대학을 졸업했으며 두 명은 전문간호교육기관에 다녔다. 유일하게 초등교육만을 받은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 넬 레이건도 스스로 공부하며 대학 졸업자 못지 않은 교양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인종문제, 사회복지 문제 등 사회적인 이슈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의 적극적인 성격은 딸에게도 아들만큼 자신감과 독립심을 심어준 아버지 덕분이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때로는 격려 때로는 가혹한 벌

Breeding(교육)

Q:이들의 자녀 교육법은 어땠나.

A:트루먼 대통령의 어머니 마사 트루먼은 평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협상은 없다(Right is Right, Wrong is Wrong. There's no negotiation)”는 말을 아들에게 주입시켰다. 그만큼 확고한 윤리, 도덕, 행동 양식 등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중시했다는 뜻이다.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유를 보장되 일정한 선을 넘을 경우 “가혹한” 벌을 내렸다. 포드 대통령의 경우 “귀 꼬집힘”을 당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맞을 회초리를 직접 쥐어와야 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 또한 옷걸이를 휘두르는 “터프”한 엄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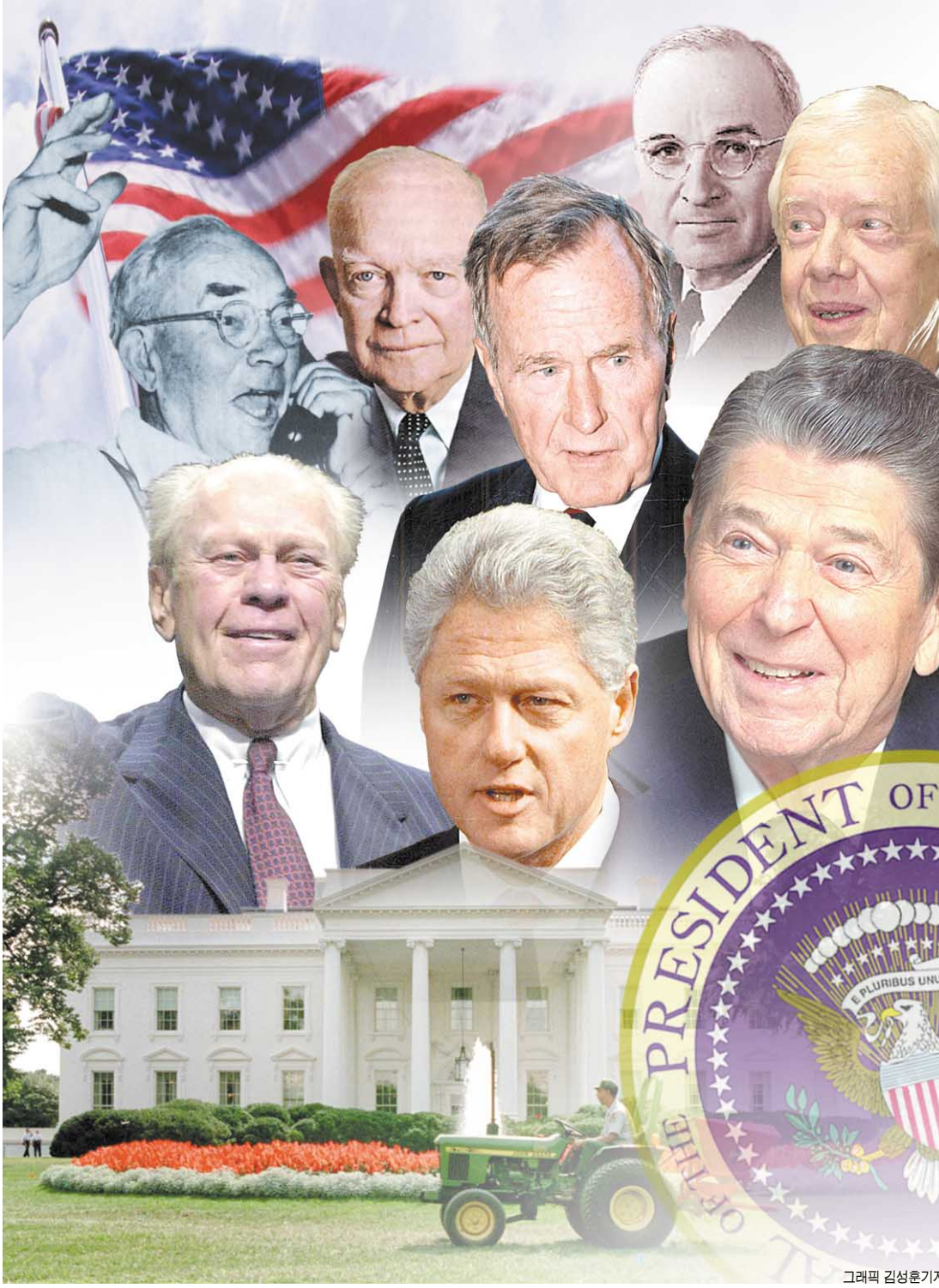
하지만 감정에 휘둘러 처벌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평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회상하는 대통령들은 “반야야 할 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자녀교육 바람직

Career woman(직장여성)

Q:한국에서도 많은 어머니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육아,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일하는 엄마’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A:나 자신도 외동아들을 키우면서 ‘혹시 내 일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 요즘은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늘고 있다. 바쁜 기자생활에도 꼭 틈틈이 머리맡에서 동화책 한 권씩을 읽어주었다. 또 하나는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독서·토론 강조한 열혈 어머니들

Desirable(바람직한 인물)

Q:이들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교육관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본인의 자녀교육관은...

A:어느 한 사람을 꼽기는 참 어렵다. 독서와 토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모두 바람직한 어머니상이 아니었다. 다만 버지니아 클린턴의 경우 자녀에게 사교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아들의 “기”를 살리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한 ‘열혈 엄마’라는 점이 평가받을 만하다.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니(38세인 그녀의 아들은 현재 한 대형 레코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비교하기는 쑥스럽지만 나도 독서를 많이 강조했다. 바쁜 기자생활에도 꼭 틈틈이 머리맡에서 동화책 한 권씩을 읽어주었다. 또 하나는 함께 여행을 많이 하도록 애썼다는 점인데 전인 교육에 효과가

크다고 본다.

사교활동 장려한 것이 특징

Elite(엘리트)

Q: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엘리트 교육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다. 대통령 어머니들의 ‘엘리트 교육’ 비법은 무엇일까.

A:아들을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 보이’로 만들 만큼 ‘대단한’ 대통령 어머니들이었지만 결코 무리한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스스로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스포츠, 사교 활동을 장려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은 ‘만능 스포츠맨’에 배우이기까지 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대통령의 어머니들은 성적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법’ ‘인디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법’에 더 관심을 쏟았다.

〈김현진기자〉

bright@donga.com

대통령 어머니들의 교육 포인트

■ 버지니아 클린턴 켈리(빌 클린턴 대통령 어머니)

‘포기-항복-웃음잃지 마라’ 3만 가르쳐



가짜 속눈썹, 진한 화장 차림으로 카지노 경마장에서 도박하기를 좋아했다. 나이트클럽에서 남자와 자주 사귀었고 5번 결혼했다. 아들을 클럽에 데려가 재즈를 들려주었으며 이후 아들은 색소폰을 배웠다.

낙천주의자였다. 외보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 맞서 싸웠다. 아들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자주 하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측면도 있었다. 잔정과 융통성이 많았고 유머가 넘쳤다. 아들에게 3가지 불가(不可)를 가르쳤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항복하지도 마라. 웃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 넬 윌슨 레이건(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

외톨이가 된 아들 공개적으로 격려



가난했다. 아들에게 줄 것이 없었지만 미혼 시절 성(姓)인 ‘로널드’를 이름으로 붙여주었다. 자녀들에게 예명을 지어주고, 본명 대신 부르기를 즐겨했다. 어린 아들 레이건이 ‘동풍한 네덜란드인(Dutch)’을 연상시킨다며 ‘더치(Dutch)’라고 불렀다. 잦은 이사로 아들이 외톨이가 돼 갔으나 공개적으로 아들을 자주 격려했다. “저 애 보세요. 재가 바로 내 아들 더치예요!”

■ 사라 델러노 루스벨트(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어머니)

아들위해 학교열 이사... 미국관 ‘孟母’



부잣집 딸에, 극성스러운 어머니였다. 병든 아들의 면회를 기숙사에서 거절하자 사다리를 담벼락에 걸고 아들 방까지 올라가 창문에서 동화를 읽어주었다. 아들의 하버드대학 생활을 돕기 위해 아예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다. 미국관 ‘맹모(孟母)’였다. 아들에 대한 독점욕이 대단해 고부 갈등이 심했다. 아들은 결국 어머니를 선택했으며 어머니가 질투하지 않는 여성과 외도했다. 아내 엘리너는 루스벨트와 죽을 때까지 같은 침대를 쓰지 않았다.

■ 레베카 제인스 존슨(린든 존슨 대통령 어머니)

가출서 돌아온 아들 질책않고 대학보내



가난한 정치인의 아내였으며 극성스러운 어머니였다. 아들에게 바이올린과 댄스 교습을 강요했다. 아들이 열여섯살 때 성공해 돌아오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눈을 속에 떠나보냈다. 아들이 2년 동안 막일을 거친 뒤 실패해 돌아오자 아무런 질책 없이 대학에 입학시켰다. 가난하게 대학을 다녔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몰려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돌보신다’는 뜻의 ‘메즈파(Mezphai)’라는 단어를 늘 적어 보냈다.

■ 마사 영 트루먼(해리 트루먼 대통령 어머니)

전쟁폐해 어린아들 가르친 강골



미주리주 두메산골 출신의 농부와 결혼했으며 시집살이를 했다. 아들에게 다섯살 때부터 굵은 활자로 된 성경 읽는 법과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쳤다. 남북전쟁의 폐해를 몸으로 겪었으며 어린 아들에게 실상을 세세하게 전해주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된 후 “확폭탄 제조는 잘못”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밝혀 백악관 출입금지 처분을 당했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

세방 하이빌은 서울시 10차 동시분양으로 공급됩니다

강남 22.9평형이 평당 790만원?

역삼동 세방 하이빌

투자의 중심, 교육의 중심-이제 주거의 중심 역삼동에 시립시오

저렴한 분양가 강남의 중심이면서도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분양가

명문 8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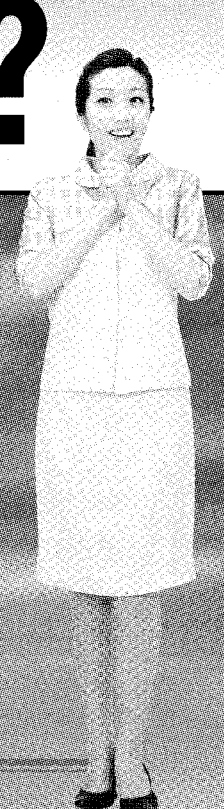
중대부속고, 한국대부속고, 은평여고, 진선여고, 역삼중, 도곡중, 단대부속중, 도산초등학교 등 8학군 중의 8학군

편리한 교통 지하철 역삼역(2호선)과 도곡역(3호선)이 인접한 역세권
역삼로, 연주로, 테헤란로, 서초IC로 통하는 시동광달의 교통망

문화·편익시설

롯데백화점, 한울광화문, 영동세브란스병원, 계동문화센터, 역삼세무서 등 의료, 문화, 행정시설의 밀집지역

세방기업주식회사



모빌하우스 오픈 중
2호선 서초역 4분 출구 앞
22.9평형 전세대
일번분양
(02) 587-5405~7